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반 응’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그 사람은 누가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눈이 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 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느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이가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결핍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왜 그런 것인지 여쭈어 볼 때, 하느님은 그것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나의 못난 부분이 오히려 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볼 수 있게 된 눈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더불어 내 가족과 조상의 죄가 그간의 소경으로 살았던 자기

삶과 관계가 없다 하니 얼마나 큰 오해가 풀렸습니까?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온 분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과 유대인들은 그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일을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의 기쁜 소식에 반가워하거나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느님으로 인해 더 불편해졌다며 탄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드러난 일이 하느님의 일이며, 그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설득하고, 괴롭히고, 욕설을 퍼부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리사이들에게 내쫓김을 당했지만,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이 하느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의 음성에 '반응'했다면 자기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일을 부정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음성에 '반응'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의 '반응'이 배울 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 '반응'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야유와 음모를 멀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엇에 더 기꺼이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반응'에 우리는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일과 대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많이 흔들리거나 너무 터무니 없이 하느님이 아닌 사람들 쪽으로 가버린다면, 우리는 이 사순시기 동안 '반응'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 굶주림이 참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대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래서 외로울지도 모르는 시기를 살도록 노력하는 사순시기 되면 좋겠습니다.

**송현동 본당 보좌 김지성 안토니오 신부**

##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익, 나의 선입관들을 버리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며 이 전례 중에 마음모아 기도 드립시다.

**입당성가 :**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본기도**

**†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 6절-7절. 10절-13절**

**안 내 :**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은 하느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묵 상 :**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 에페소서 5장 8절-14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고 합니다.

**묵 상 :** 신앙인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과 의로움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천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서 어둠을 벗어나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 9장 1절-41절**

**강　　론 :** '반응'(1-2쪽)

**예물준비성가 :** 340번 '봉헌'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신앙의 소경이 있습니다.
사물도 분간하고 글도 알지만,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진짜 소경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태생 소경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태생 소경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죄를 부정하고
그릇된 선입견과 좁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기에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침묵>**
우리도 장님이면서 장님인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성찰하며
주님께 겸손되이 청합시다.
'주님, 저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7번 '지극한 근심에'

**※ 공소사목 성금**

| | | | |
|---|---|---|---|
| 조남순님 | *100,000*원 | 봉화성당 | *60,000*원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2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 알 림

## ■ 우곡성지 미사 안내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월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673-4152 FAX 054-673-7094

## ■ 교구성령기도회

· 일시 : 3월 27일(월) 20:30
· 장소 : 예천성당
· 강사 : 김찬도 분도(수원교구)

## ■ 사제연수

· 일시 : 3월 27일(월) - 28일(화)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 ■ 2017년 안동 48차 선택주말

· 일시 : 3월 31일(금)19:00-4월 2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054)652-0591~3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8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2017 수쉬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4월 2일(주일) 19:30 영해성당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 ▣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재개봉

· 끝없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12시간
· 전 세계 역대 종교영화 흥행 1위
· 일시 : 4월 13일(목)
· 전국 CGV 관람 가능
· 문의 : 070-4452-2879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 4월 2일(주일) 10:00
· 장소 : 서울 돈암동 본부
· 문의 : 02-924-3048

##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문의 : 010-3777-4688, 조대윤 야고보 신부
kmsvocation@daum.net

## ▣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부활 전례피정

· 일시 : 4월 13일(목) 16:00-16일(주일) 13:30
· 장소 :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 참가비 : 21만원
· 문의 : 054-971-0722, 010-9877-4739

## ▣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젊은이 피정

· 주제 : 삶의 그림자 풀어주기
· 일시 : 4월 28일(금) 19:00 - 30일(주일)
· 장소 :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 대상 : 미혼여성
· 회비 : 2만원
· 문의 : 043-295-5940

## ▣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모집

· 만 15~26세(30세)남자, 1년과정(기계가공,00명)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교육비 및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일반인가능
· 문의 : 02-828-360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 4장
## 혼인의 사랑

###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18. '판타 히포메네이'(*Panta hypoménei*). 이는 사랑은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련을 견디어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어려운 상황도 굳건히 견디어 냅니다. 이는 단순히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곧,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굳센 마음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상황이 우리를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이끈다고 하여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종의 굽히지 않는 영웅 정신, 곧 모든 부정적인 흐름에 맞서는 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선을 위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모진 박해와 굴욕 가운데에서도 형제적 사랑을 선택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한 말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가장 증오하는 국민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증오하는 인종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종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코 버릴 수 없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 원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 여러분이 사랑과 사랑의 위대한 아름다움과 힘의 차원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이 물리치려 하는 유일한 것은 사악한 제도들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제도에 어쩌다 말려든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제도를 물리치는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증오에 증오로 맞서면 세상에 증오와 악이 더욱 만연하게 될 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때리면 당신은 저를 때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당신을 때리고, 당신은 다시 저를 때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는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증오의 고리,

곧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누군가는 강한 신앙과 도덕성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구조 자체에 그 강력한 사랑의 요소를 심어야 합니다.”

119. 가정생활에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악과 맞서도록 해 줍니다. 사랑은 분노, 다른 이에 대한 경멸, 상처 주거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리스도교의 이상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육체적 폭력에서 보호하려면 배우자와 헤어져야 하는 데도,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부부 사랑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투병, 고통, 시련을 겪을 때에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그를 돌보려는 이들을 보면 저는 종종 놀라곤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봅니다.

## 부부 사랑의 증진

120. 지금까지 살펴본 바오로 성인의 사랑의 찬가로 우리는 부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부 사랑은 남편과 아내를 일치시켜 주는 사랑이며, 이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요로워지며 명료해집니다. 이는 영적이며 헌신적인 “애정의 결합”으로 우정의 따스함과 육체적 사랑이 합쳐진 것이지만, 감정과 열정이 식어 버려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혼인 생활의 모든 의무에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강한 사랑은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기까지 당신을 바치심으로써 절정에 이른 그리스도와 인류의 깨지지 않는 계약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 주신 성령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주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애가 내재적으로 지향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면 부부 애덕이 됩니다.”

121. 혼인은 소중한 표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성사를 거행하면,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반영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 안에 당신 모습과 당신 사랑의 지울 수 없는 특징을 새겨 주십니다. 혼인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친교이십니다.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를 이루시며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배우자 두 사람을 유일한 하나의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는 일상에서 구체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부는 “혼인성사의 힘으로 참되고 고유한 사명을 부여 받아 삶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2.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다른 차원의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일치를 완벽하게 재연하라는 엄청난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혼인은 하나의 표징인 것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의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 아름다운 배려(1)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016년 3월 15일 오늘은 하망동성당에서 부활합동판공성사를 보는 날이다. 젊은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죄도 많이 지었으므로 고해 성사도 자주 보았다. 때로는 본당 신부에게 성사 보기가 민망하여 멀리 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 성사를 보기도 했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사회활동도 별로 하지 않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살고 있어서 남들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죄지을 일이 없으므로 근간에는 고해성사를 1년에 두 번, 부활과 성탄 때 판공성사만 본다. 젊은 시절의 하느님은 벌을 주는 무서운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 주로 통회의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가 철철 넘치는 한 없이 좋으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주로 바친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단 한 번이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지금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원을 나는 날마다 이루고 살아 왔음에 감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생에서 단 한번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기적들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비록 쩔뚝거리지만 손자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 내린 언덕에 빠작빠작 소리를 내며 나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붉은 노을 속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돋이와 형형색색의 꽃과 나비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색영롱한 무지개를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여울의 청아한 물소리와 온갖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나뭇잎에 머무르는 바람소리와 온밤 내내 별을 세는 벌레들의 속삭임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더욱이 감사할 것은 당신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사랑한다.”고 목청껏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부자가 아니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우리의 선조들 또한 우리 못지않게, 전분세락(轉糞世樂; 개똥밭에 굴러도 이세상이 좋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고해성사(告解聖事)이기 때문에 벌써 며칠 전부터 판공성사(判功聖事)를 위해 양심성찰(良心省察)을 하고 있으며 오늘은 성사를 보는 날이므로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려고 점심 식사 후에 염색을 하고 인근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갔다. 카운터에 만 원을 주고 신발장 번호표를 배정받아 신발을 집어넣고 옷장 열쇠를 챙긴 다음 카운터의 자매님에게 손을 내밀었다. 목욕비가 5천 원이기 때문에 5천 원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자매님은 만 원짜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5천 원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내어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스름돈 5천 원을 놓고 두 사람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조금 전에 염색을 하고 돈을 줄 때 주머니에 분명히 만 원짜리가 두 장이 있었다. 한 장은 염색비로 주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는 달랑 만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젊은 시절에는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 지도 모르고 살았던 적도 있지만 요사이는 주머니에 천 원짜리가 몇 장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만 원짜리와 5천 원짜리를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 내가 계속 강력하게 나가자, 자매님이 고객과 심하게 다투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지, 5천원을 생다지로 빼앗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히 5천 원짜리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5천 원을 건네주었다. 거스름돈을 받기는 받았으나 나 역시 기분이 좋지가 않았다.